

한자리에 모아 엮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역주 당률소의》

법제도는 어느 시점의 고립된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생성과 전파, 발전하는 전과정 즉 그 역사속에서 재조명되어야 진정한 의의와 규범으로서의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법의 역사와 현행법의 변천을 밝혀줄 두 권의 책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돼 시선을 끈다.

근대법 도입 100주년 맞춰 출간

우리나라 정부수립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법률이 지나온 이력을 보여주는 《대한민국법률연혁집》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법(古有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唐律疏議》를 번역한 《역주 당률소의》가 그것.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장명근)이 펴낸 이 두 책은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나와 의의를 더하는데 한국 법제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이고도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개정방식은 현존 조항을 그대로 두고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현존의 조항 또는 문구를 삭제,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이 변해온 과정을 살필 수 없다는 불편이 있다.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법률연혁집》은 우리 법령의 지나온 자취를 알고자 할 때 일일이 지난 자료들을 들춰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모든 법령들의 조항과 그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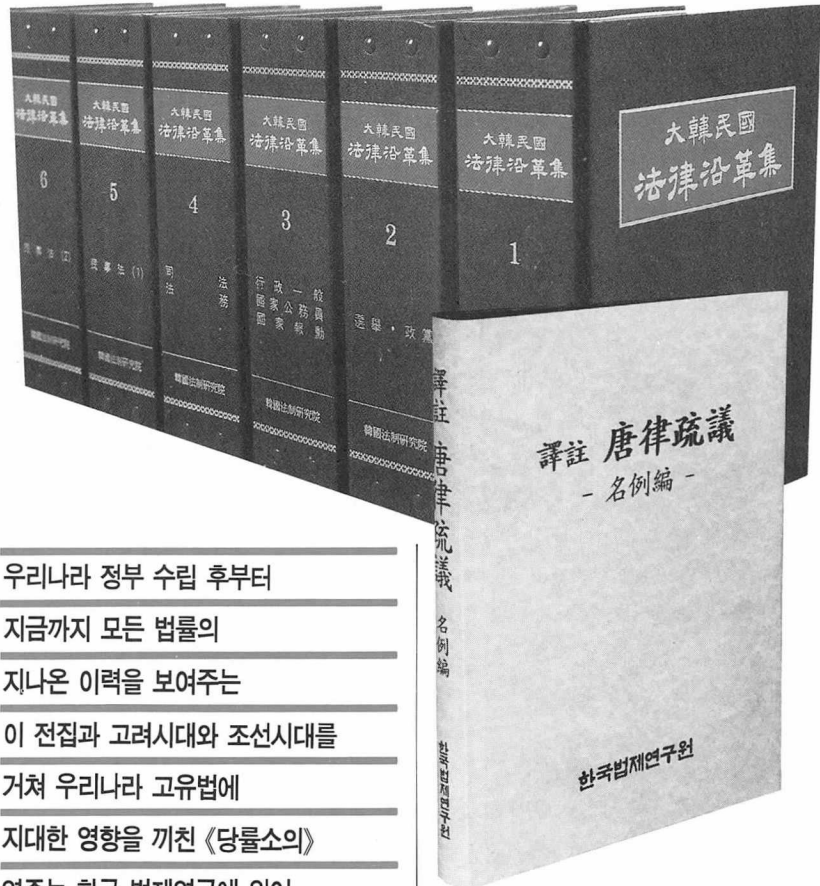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총 32권 23,540면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이 연혁집 속에는 1994년 3월3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뿐 아니라 폐지되었거나 실효성이 상실된 법률 등 총 6315건(헌법 9건, 개정법률 4306건, 폐지법률 478건, 대통령 긴급명령 16건)을 수록하고 위헌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조문의 전문과 위헌결정문 요지까지 함께 수록했다. 배열은 법제처가 편찬한 <대한민국헌법령집>의 배열에 따르고 각 법률의 내력을 개관할 수 있도록 첫머리에 연혁난을 따로 두었고 본문에서는 해당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일자 및 공포번호와 이유 및 변화된 내용의 전문을 수록했다.

한편, 각 권마다 목차 및 색인목차와 연혁집의 편별일람표를 실고, 마지막 권에는 색인 총목차와 권별목차, 법률연혁목록 외에 실효법률목록, 공포법률목록 등을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고유한 법정신의 이해 높여

당나라 고종때의 법률인 ‘영미율(永徽律)’에 국가의 공식적 유권해석인 주소(注疏)를 덧붙인 형법주석서인 《당률소의》는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중국의 법전을 집대성한 것으로 일찍부터 우리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려시대의 ‘고려율’이나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등에도 《당률소의》의 법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법 연구에 《당률소의》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률의

지나온 이력을 보여주는

이 전집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당률소의》

역주는 한국 법제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료다.

자료다.

이번에 나온 《역주 당률소의》 名例편은 12편 30권 총 502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법전인 《당률소의》중에서 총칙에 해당하는 ‘명례율’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모두 6권 57조 해당하는 법률을 ‘율문’ ‘소의’ 차

레로 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한편, 풍부한 역주를 달아 이해를 돕는다. 우리 전통법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 중국의 대표적인 고법전을 통해 우리 고유의 법체계와 법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사회상이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는 기대다. —박남정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출판정보의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출판정보」에서는 약50여종의 일간지에 실린 출판관련 기사를 각 회원사별로 발췌·정리하여 팩스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① 팩스서비스는 199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 ② 중앙일간지 17개와 지방일간지 31개에 실린 모든 기사(신간소개, 작가관련내용, 출판인 및 출판사홍보, 독후감과 서평 등)를 제공합니다.
- ③ 신청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출판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판인들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 「출판정보」는 출판정보종합매체로서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 국 저널의 출판관련기사와 광고,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가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